

|유아, 초등 저학년|

〈개가 된 소년 펠릭스〉

에린 엔트라다 켈리 지음 | 원지인 옮김 | 보물창고 펴냄

★2025 〈뉴베리 대상〉 수상 작가★



2018년에 이어 2025년, 어린이 문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뉴베리 대상을 두 번이나 수상하는 영예를 안은 작가 에린 엔트라다 켈리의 동화『개가 된 소년 펠릭스』는 중고 상점에서 산 담요의 신비한 힘으로 개가 되어버린 8살 소년 펠릭스가 자신의 반려견 '포핀스'에게 개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고, 떠돌이 고양이 '검보'와 소통하며 특별한 우정을 쌓는 이야기이다.

어딘가 남다른 아이 펠릭스. 과연 펠릭스는 다시 소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주목하며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어린이 독자는 어느새 동물들의 세계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물과 사람이 어우러져 서로 교감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을 더욱 좋아하게 될 것이다.

읽기 전 활동

- 내가 개로 변한다면,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가요?
- 되어보고 싶은 동물이 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개가 된 소년 펠릭스는 개와 사람 중 어느 쪽을 더 좋아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쩔까요?

읽기 중 활동

- (29쪽) 포핀스가 샌드위치를 더 많이 만들어서 바닥에 버리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74쪽) 포핀스는 전혀 골든리트리버나 세인트버나트처럼 생기지 않았지만, 펠릭스가 그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131쪽) 펠릭스가 포핀스와 자신에겐 ‘안전하고 따뜻한 집’이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 고양이 검보는 왜 슬픈 표정을 지었을까요? 고양이가 길에서 살 때,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에는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해 보아요.



읽은 후 활동

- 내 몸 안에서도 ‘심술궂은 톱니바퀴’가 돌아간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화가 나거나 슬픈 감정 때문에 나의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하면 톱니바퀴를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 사람은 다른 손가락과 ‘마주보는 엄지’가 있어 물건을 쉽게 손에 쥘 수 있어요. 또 사람처럼 ‘마주보는 엄지’가 있는 동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어둠 속에서도 잘 볼 수 있지만 어둠이 무서운 고양이 겸보처럼, ‘할 수 있지만 두려운 것’이 여러분에게도 있나요?
- 할머니의 슬리퍼 곁에서 좋은 생각을 떠올리는 포핀스와 펠릭스처럼, 여러분에게 좋은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물건은 무엇인가요?

혹시나 날 수 있지 않을까, 담요를 망토처럼 둘러 봤다.
날 수 없었다.



혹시나 공중에 떠오르지 않을까, 담요 위에 앉아 봤다.
떠오르지 않았다.



이번에는 담요를 머리에 뒤집어쓰고 투명 인간이 되기를
기다렸다.
역시 변하지 않았다.

